

사고정지(思考停止) 사회 비교연구

-일본의 사례로 본 한국사회의 사고정지 실태-

이 형 철* · 정 근 하**

(e-mail: wrg3141@naver.com)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Korean society through the lens of a 'thoughtlessness' phenomenon being widely observed in Japan. The term, 'thoughtlessness' used in this paper does not literally mean stopping thinking and instead means acting without critical thinking to achieve goals no matter how they are irrational, illogical. Through the research, we find a strongly identical 'thoughtlessness' phenomenon in both Japanese and Korean society. Japanese people tend to thoughtlessly stick to outmoded ways that they have been doing to maintain their national identification; Koreans show the growing tendency of being 'thoughtlessness' when they try to achieve the goals of moving up in the social class and winning success and fame.

key words : thoughtless society, achieving fame and prestige, deep resentment, saving face. 사고정지 사회, 신분상승, 입신양명, 한, 체면,

* 조선대학교 문화대학원 박사과정(제1저자)

** 조선대학교 아시아문화교류 사업단 연구교수(교신저자)

1. 서론



〈그림 1〉 미토고몬의 명신 이 인장이 보이지 않는가? 모두 열드리 미토고몬의 판결을 받으라는 장면.

고하라노부오(郷原信郎: 2009, 4-191)는 일본의 인기 TV드라마 TBS의 미토고몬(水戸黄門)¹⁾의 명신인 “この印籠が目に入らぬか(우리말로 한다면 “암행어사 출두요”에 해당함)”라는 명대사를 소개하며 ‘인장(印籠: 한국의 마패에 해당함)’을 꺼내 드는 순간,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즉각적으로 땅바닥에 엎드리는 장면이 일상생활에서도 재연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드라마에서 ‘인장’이 사람들을 제압하듯 현실 사회에서는 ‘법령(규칙, 규범, 룰, 매뉴얼)’이 인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법령을 꺼내어 드는 순간 일본인들은 마치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맞닥뜨린 것처럼 ‘이성이 마비된 채’ 무조건 법령을 ‘준수’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본사회에서 법령은 윗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부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것’으로 그저 숭배하듯 따라야 하는 것이었다. 이 의식이 오랜 동안 지속되면서 법령은 ‘준수’의 수준을 넘어 준수가 ‘목적’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한다(郷原信郎: 2009, 191). 아무리 비이성적인 법령이라 할지라도 준수하는 일이 목적이 되어버린 지금의 일본사회를 고하라는 ‘사고정지 사회’라 명명했고, 사고하지 않음으로 활력을 잃은 일본사회는 멸망할 것이라 예언했다²⁾. 그렇다면 한국사회는 ‘사고정지’라는 키워드 앞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 본 연구자들은 한국사회 또한 일본사회에 못지않게 ‘사고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법령’이 아무리 비이성적, 비합리적, 비논리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준수하려는 일본의 경우처럼, 한국은 신분상승을 위한 노력들 앞에 한국의 전통적 감성인 ‘한(恨), 체면’이 결합되면 사고정지 현상이 일어난다. 요즘 유행어인 ‘엄친아(엄마 친구 아들)’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사회는 타인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한을 품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좋다하더라”라는 말이 나오면 아무리 비합리적, 비이성적, 비논리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따르고 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사

1) TBS의 “水戸黄門”은 1969년 8월 4일 드라마가 시작하여 2011년 12월 19일 “水戸黄門 최종회 스페셜”을 마지막으로 42년간의 역사의 막을 내렸다. 총 1,227화가 방송되었고, 평균시청률 22.2%, 최고 시청률 43.7%를 기록하는 등 일본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시대극으로 한국의 “암행어사”와 똑같은 구조의 시대극이다.

<http://www.tbs.co.jp/mito/intro/> (2015.7.2. 검색)

2) 郷原信郎(2007), 『「法令遵守」が日本を滅ぼす』, 新潮新書.

고정지'란,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비이성적, 비합리적, 비논리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법령이니까', '종으니까'라고 조건 지워지면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태도를 말한다.

'사고정지'라는 키워드 앞에 한일 양 사회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며, 이 연구는 일본의 사고정지 상황을 초래한 역사적 배경을 찾아보고, 한국사회를 같은 방법으로 조명한 사례연구이다.

제1장 한·일 양국의 사고정지 사회 고찰

1. 일본의 전통문화 속의 사고정지 배경 고찰

일본인론으로 유명한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 1887-1948)는 『국화와 칼: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에서 일본인들의 생활태도가 국가(國), 가족(イエ), 동족, 친구집단에 대한 기무(義務), 기리(義理), 온(恩), 하지(恥)라고 하는 문화규범 속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일본인은 '규범, 규칙, 법' 등에 함몰되어 있음을 여러 장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³⁾.

- (1) 일본인은 미리 계획되고 진로가 정해진 생활양식에서만 안심을 얻을 수 있으며, 예견하지 못한 일에는 심각한 위협을 느낀다.(p40)
- (2) 그들은 상전(다이묘)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법도를 어긴 것이어서, 이 점은 도저히 간과될 수 없는 일이었다. 때문에 그들은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다. 동기의 정당함은 법을 어긴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이다....중략...그들은 처형에 즈음하여 결국 폭동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것이 바로 법이자 질서였기 때문이다.(p78)
- (3) 일본인은 다른 어떤 주권국보다도 그 행동이 끝에서 끝까지, 마치 지도처럼 정밀하게 미리 규정되어 있어 각자의 사회적 지위와 정해진 그러한 세계 속에서 생활하도록 조건지워져 왔다. 법과 질서가 무력에 의해 유지된 200년간, 일본인은 이 면밀히 기획된 계층제도를 안전과 보증으로 동일시하도록 훈련되었다. 그들은 이미 아는 영역에 머무는 한, 이미 아는 의무를 이행하는 한, 그들의 세계를 신뢰할 수가 있었다....중략... 사람들은 지도⁴⁾를 신뢰했다. 그리고 그 지도에 표시된 길을 따를 때에만 안전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꾸든가 혹은 그것에 반항하는 대신, 그것을 지키는데 있어서 자신의 용기와 고결함을 드러내었다.(pp81-82)
- (4) 일본인이 상세한 행동의 지도를 좋아하고 신뢰한 것에는 하나의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지도는 사람이 규칙에 따르는 한 반드시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19세기 후

3) 소개하는 내용은 김윤식 외(1996)의 『국화와 칼』에 번역된 그대로 옮긴 내용임.

4) 여기서 '지도(map)'란 각기 알맞은 신분을 규정한 정신적 지도를 뜻한다. 즉 도덕적인 규범의 지도이다(베네딕트: 82)

반에 도쿠가와 막부가 붕괴되었을 때에도, 국민 중에는 이 지도를 없애 버리자고 의견을 제시한 그룹은 없었다. 프랑스 혁명 같은 것은 일본에선 일어나지 않았다.(pp84-85)

(5)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법률에 복종하는 것은 그들의 최고 의무, 즉 고은(皇恩)을 갚는 일이다. ...중략... 일본인은 우리 미국인을 준법정신이 결여된 국민이라고 판단한다. ...중략... 일본인들은 비록 그것이 항복의 명령이긴 했지만, 그 명령을 내린 것은 천황이었다고 말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이었다. 패전에 있어서도 최고의 법은 여전히 주(忠)이었다.(pp143-145)

(6) 잘하는 경기자란, 규칙에 따라 그 규칙의 범위 내에서 경기하는 사람이다.(p234)

(7) 그들은 다만 타인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世評) 하는 것을 추측하고, 그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의 행동 방침을 정한다. 모두가 같은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여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있을 때에는, 일본인은 쾌활하고 쉽게 행동할 수 있다. 그들은 그것이 일본의 '사명'을 수행하는 길이라고 느끼는 경우에는, 게임에 열중할 수가 있다. 그들이 가장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은, 그들의 덕을 일본 특유의 선행도표가 그대로 통용되지 않는 외국에 적용하려고 시도한 때였다.(p240)

(8) 일본인은 스스로에게 많은 요구를 한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배척당하여 비방을 받는 큰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은 모처럼 맛을 알게 된 개인적인 즐거움을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들은 인생의 중대사에 있어서는 그러한 충동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중략...스스로를 존중하는(자중하는)인간은 '선'이나 '악'이냐가 아니라, '기대에 부응하는 인간'이 되느냐 '기대에 어긋나는 인간'이 되느냐는 것을 목표 삼아 그 진로를 정하며, 세상사람 일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 요구를 버린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부끄러움(恥: 창피)을 알고' 한없이 신중하고도 훌륭한 인간이다. 이 사람이야말로...중략...자기나라에 명예를 가져오는 사람들이다.(p309)

(9) 일본의 정원의 땅 속에 반쯤 파묻혀 있는 큰 바위들은 어느 것이건 신중하게 선택되어서 운반해온 것으로...중략...신중하게 고려하여 정해진다. 국화도 마찬가지로 품평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손질을 받게 되는데, 불 만한 꽃잎은 한뼘 한뼘 재배자의 손으로 정돈되고, 또 때때로 살아 있는 꽃 속에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철사로 만든 고리를 끼워서 올바른 위치를 지키게 한다....중략...그러나 오늘날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며, '하지(부끄러움)'의 강제력에 의혹을 품는 자유는 그들의 생활양식의 미묘한 균형을 깨뜨릴 우려가 있다. 그들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강제력을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중략... 국화는 철사 고리를 떼어 버리고, 것처럼 철저한 손질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게 피어 자랑스러울 수 있다.(pp311-312)

일본인에게 '자신의 위치', '자신의 역할', '선과 악'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행동하는 것은 타인(世間, 혹은 世評)에게 모범이 되는 훌륭한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덜 성숙한 인간, 하지(恥: 창피함)를 모르는 인간,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인간으로 낙인찍혀 배척당하게 된다. 죽음과 같은 배척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일본인들은 어려서부터 국화나 분재처럼 철사와 같은 규범에 단단히 고정되어 자기수양 훈련을 한다고 베네딕트(1996: 243-313)는 주장한다. 일본인이 획일적인 행동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일본인이 똑같은 내용의

자기수양 방법(규범)으로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행동지침서(생활양식, 행동지도, 규범)로 세대를 넘어 훈련되어져 왔기 때문에 획일화된 것이다. 일본사회에서 이상적인 삶이란 규범에 반항하는 삶이 아니라 그대로 따르는 삶이다.

‘정해진 것을 거역하지 않고 순응하는 일본인의 문화적 습성’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정근하(2014b: 331-332)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정해진 규범에 거역하지 않고 순응하는 일본인들의 문화적 습성들에 대해 中根千枝(1972: 983)를 비롯한 稻村博(1980: 983-1010), 近藤裕(1981: 122)와 같은 학자들은 좁고 고립되어 있는 섬나라이기 때문이라며 지칭학적 이유...중략...일본사회가 마을중심(村社會)사회였다는 점에 큰 이유가 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서 정한 규칙(掟: rule)을 준수하고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집단적인 따돌림, 즉 무라하찌부(村八分)라는 처벌이 가해졌다. 당시 막부 또한 각 마을마다 다른 자체적인 규범에 대해 규제하기 보다는 각 마을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무라하찌부를 묵인함으로써 차별하는 문화가 정착하게 되었고, 이 같은 인신공격 형태의 차별은 이름을 바꾸며 지속되어...중략...현재 기업에서는 평균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대기 발령 시켜 따돌리는 窓際族(창 쪽으로 밀려난 사람들), 학교에서는 이지메의 형태로 규범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배척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인들은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철저히 교육되고 있으며 초등학교들 사이에서 마저도 자신들의 규범을 지키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서로를 의식하고, 신경을 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범이나 룰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따돌리는 문화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일본인들은 자신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룰이라 할지라도 “룰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 사료된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씨족 중심의 작은 마을 단위로 생활해 온 일본의 전통사회는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안(イエ)과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움직이는 사회였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규범(掟: 오키데=rule)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규범을 어기는 것은 일본사회의 전통적인 인간관계의 원칙인 ‘상대방을 기준점으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는⁵⁾’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Outside-in 원칙⁶⁾’을 깨어 부수는 ‘이단아(異端兒)’ 내지는 ‘일탈자(逸脫者)’가 되는 것이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 정해 놓은 규범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규범을 어기는 것은 ‘덜떨어진 인간’, 혹은 세간(世間)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지 않는 ‘하지(恥)’를 모르는 인간으로 간주되어 배척당하게 됨으로 일

5) 森有正(1971), “出發点日本人とその經驗(b)”, 思想568号, 102-103쪽.

6) 濱口恵俊(1977), 『「日本らしさ」の再発見』, 日本經濟新聞社, 252-262쪽. 일본인은 배가 고플 때 ‘배고프다’라고 직접 표현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나요?’라고 상대에게 먼저 묻는다. 이에 상대방은 재빨리 그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 배고프다’라는 말은 아직 미숙한 아이 내지는 창피함을 모르는 수준 낮은 사람이 되는 표현인 것이다.

본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집단의 생각에 맞춰져 획일화되어⁷⁾ 다양하고 자유롭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고정지 사회를 초래했다.

2. 고히라노부오(郷原信郎)의 ‘사고정지(思考停止)’ 사회

2009년 고히라(郷原)는 ‘법령준수로 좀 먹고 있는 일본’이라는 부제목의 『사고정지사회』라는 화제작을 출간했고, 이 보다 앞선 2007년 『법령준수가 일본을 멸망시킨다』는 책을 출간하여 지금처럼 ‘법령준수 일변도’로 나갈 경우, 일본은 멸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히라가 말하는 ‘사고정지’ 상황이란 자신들이 지켜오던 ‘내부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선 외부의 법령’을 들이대면, 즉 입장을 들이대면 모두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처분을 기다리듯 생각을 포기한다는 것을 말한다⁸⁾. 그는(2009) 후지야(不二家), 로손(ローソン), 일본햄(日本ハム) 등의 일본사회에서 이슈가 된 여러 장르의 사건들을 예를 들며 일본사회의 사고정지 상황을 설명하였다.

- (1) 후지야는 2007년 상미기한 우유사용으로 기업 존망의 위기를 맞았다. 소비기한과 상미기한은 의미가 다르다. 후지야의 경우, 맛이 조금 떨어지지만 상품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 상미기한을 넘긴 우유로 슈크림을 만들어 판매하였다. 후지야는 자신들의 품질 기준에 입각하여 슈크림을 만들어 왔고, 위생관리를 잘 해왔다. 그러나 소비기한이라는 기준(법령)을 들이대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외부의 법령에 그대로 굴복해 버렸다.
- (2) 로손의 연어스시 상미기한 사건의 전모는 주재료인 연어스시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스시에 곁들여져 있는 작은 간장의 상미기한이 넘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상식적으로 간장은 하루 이틀 지났다고 문제가 되는 신선식품이 아니다. 그러나 법령을 들이대자 로손은 전국의 연어스시를 자진 회수 폐기하고, 사과기자회견을 갖았다.
- (3) 일본햄 시안화물(cyanide) 첨가 사건은 공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시안화물이 첨가 되었다는 이유로 소시지, 피자 등 13품목 전체를 회수 폐기한 사건이다.

7) 權谷浩(2011: 92-93)는 “일본은 인간으로 존재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동질의 사회, 개성과 다양성이 결여된 사회가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 일본이 국가를 형성하기 시작한 때부터 지속되고 있는 ‘세간(世間)’이라고 하는 경직된 사회형태 때문이다....장기간 획일적인 사회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정신구조는 ‘세간의 상식’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세간이 지배하는 일본사회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사람, 즉 적극적인 자세를 갖춘 인재가 매우 적다. 이 때문에 메이지유신 개국시대의 福澤諭吉가 주장한 ‘독립자존의 정신’이 결여된 정신구조가 세대를 넘어 지금까지 면면이 지속되어 흐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權谷浩(2011), “日本の危機”, 商學討究, 62(1).

8) 고히라(2009: 189)는 미국과 일본의 법령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다. 미국의 경우 법령은 시민사회와 경제활동의 중심에서 기능하는 친숙한 것으로 법령은 사회의 변화에 다양하고 적절하게 대응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반면, 일본에서 법령이란 사회 주변부에 위치하며 시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동떨어져 있는 존재이다. 이 법령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접하게 되는 낮선 것으로 오직 준수해야 할 존재였다. 그 법령이 나오는 순간 일본인은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준수하고, 지키는 태도’를 취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치바 공장의 시안화물 첨가율은 세계건강기준의 1/3에도 미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었고, 회수된 제품들에서는 시안화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의 법령을 들이대자 일본은행은 이 사건을 대응하지 않고 굴복하고 말았다.

일본사회의 법령에 대한 태도는 사고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준수’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음은 본 연구자가 2013년 1월 미스비시도쿄 UFJ은행(三菱東京UFJ銀行)에서 직접 경험한 사고정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2010년 12월 귀국에 앞서 통장의 동결을 막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여 귀국의 취지를 알리고 업무용 우편이 발송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귀국했다. 2013년 1월 일본 방문차 은행잔고 처리와 해약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은행계좌가 해약되어 잔고를 받기까지 3일이 걸린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일정은 4일로 잡았다. 본인을 증명할 여권, 일본의 운전면허증, 도장을 지참하여 오후 1시에 은행에 도착했다. 통장은 예상과 달리 동결이 되어 있었다. 은행에서 발송한 우편이 3개월 동안 반송되어 동결처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어찌 되었든 본인이 왔으니 동결을 풀고, 해약 업무에 들어가자고 말하자, 은행이 발송하는 우편이 고객의 집에 도달이 되어야 동결이 풀린다고 하며, 일본 내의 주소를 알려 달라고 은행직원이 말했다. 그러나 연구자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어 일본에 주소지가 없음을 알리자 은행원은 당황하며 지점장에게 보고 하겠다고 자리를 떠났고, 한 시간을 기다리자 지점장이 나와 은행의 매뉴얼을 설명하며 십여 장의 서류를 가져와 작성케 하였다. 서류 작성을 마치자 은행업무 마감 시간이 되었고 담당 주임은 “내일 9시까지 오시면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방문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날, 은행에 방문한 연구자는 어제의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했고, 지점장은 연구자와 가까운 일본인을 모시고 방문할 것을 요구했다. 난감한 일이었지만 은행을 나와 연구자가 유학 시절 알고 지내던 60대의 일본인 지인 집에 찾아가 사정을 말하고 은행으로 모시고 갔지만 이번에는 친척이 아니라는 이유로 “매뉴얼에 없는 사항이라 뒷사람과 상담을 해야 한다”며 실체를 알 수 없는 뒷분과 긴 통화를 하는 등 또 하루를 허무하게 허비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본인 지인과 함께 은행에 방문했지만 똑같은 서류 작성과 납득하기 힘든 말, 실체를 알 수 없는 뒷분과의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론을 못 내린 채 호텔 방으로 돌아와야 했다. 결국 동결처리도 하지 못하고 귀국하게 되었고, 몇 일후 한국 집으로 일본 은행의 우편이 도착했다. 내용을 보니 4번 이상을 작성한 통장 동결해지 신청서와 해약 서류가 들어 있었다. 모든 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은행 담당자 손에 도착하자 연구자의 은행계좌는 동결이 풀리고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며, 그 해약을 위해서는 다시 일본을 방문을 해야만 했다. 일본은행은 결국 매뉴얼대로 일을 처리한 것이었다. 최신의 온라인망과 정보로 무장하여 정세에 민감해야 할 곳이 은행이지만 일본의 은행은 ‘규정과 매뉴얼’이 없는 일이 벌어지면 ‘사고가 정지’되어 업무가 마비되어 버렸다. 은행의 사례로 미루어 일본사회가 규정과 매뉴얼에 얽매어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연구자의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일본인들은 매뉴얼에 없는 돌발적인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은 물론, 매뉴얼이 비상식적이라 할지라도 바꾸려하지

않는다. 결국 이미 만들어진 매뉴얼을 따를 뿐이었다. 이렇게 ‘법령 준수’에 급급한 행태를 개탄한 고하라는 일본의 멸망을 직언하였다(郷原, 2007: 181). 일본사회의 ‘사고정지’ 상황은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미리 계획되고 진로가 정해진 생활양식에서만 안심을 얻고, 지도에 없는 길을 꺼리는 일본인들의 오래된 습성에서 비롯된 필연인 것이었다.

3. 한국의 전통문화 속의 사고정지 상황 고찰

일본사회가 ‘법령’이라는 단어 앞에서 사고정지 상황이 초래되었다면, 한국의 경우는 ‘신분상승’, ‘입신양명’이라는 욕망이 ‘한(恨), 체면’이라는 감성과 결부되면 그 일이 아무리 비이성적, 비합리적, 비논리적이라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겨 버리는 사고정지 상황이 초래된다고 본 연구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의 ‘恨’의 감정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사회에서 ‘한(恨)’에 대한 논의는 주로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집중되었고, 한을 민족사의 특수한 정치·사회·경제적 조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⁹⁾. 특히 1988년 서광선 등이 엮은 『恨의 이야기』에서 여러 문학자들이 사용한 한의 개념, 구조를 소개하고 있다.

한은 사제라고 말한 김지하는 한을 “인간의 외부 지향성이 억압과 착취에 의하여 차단되어 그 설움이 다시 안으로 되잡혀 들어와 고정화되고 굳어진 침전물의 정서”, “넋에 달라붙은 축적된 비애와 아픔의 독특한 정서”라고 표현했다. 한은 “정당화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풀리지 않는 분노 감정”으로 적극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서남동에 의하면 한은 한국 민족의 억압된 민주적, 민중적 저변 감정으로서 “약자의 패배의식, 허무감과 체념이 지배하는 감정상태”, 또는 “약자로서의 삶의 집념을 담고 있는 감정”이다. 정대현은 “불행의 인식론적 규명이 막힌 곳에 외적 대상이 없는 한이 결과 되었다”고 보고 불의의 체계적 구조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한을 풀 수 있다고 보았다. 문순태는 역사, 사회적 억압과 수탈로 인해 한이 생겨났다면서 한국에만 한이 있는 것은 한국인에게 복수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 보았다. 한민족의 역사는 고난에 찬 순례의 역사이고 고난과 시련의 역사였다. 동북아시아 대륙을 상실하고 한반도로 움츠러든 민족적 좌절에서, 그리고 백제의 슬픈 역사에서, 다시 말해 한민족의 특수한 고난의 역사에서 한이 생겼다.

『恨의 이야기』를 통해 이해 할 수 있는 한국의 한의 구조, 개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① 불안과 위축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끊임없는 내락과 외침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게 만들었으며, 퇴행적 심리현상을 낳게 하였

9) 이경숙 외(2001), 『한국 생명 사상의 뿌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사. 62쪽.

10) 문순태(1988), “한이란 무엇인가”, 『恨의 이야기』, 보리, 152-156쪽.

다. ② 유교중심의 사상이 빛은 계층의식으로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던 천민이나 노비들의 원한이 쌓였다. ③ 남존여비 사상으로 인한 남성들의 여성들에 대한 횡포와 여성들이 인정의 미덕을 강요당한 데서 생긴 여한(女恨)이다. ④ 가학적 사대부와 그에 따른 피학적 민중의 한이다.

이상의 한의 정의들 안에는 신분과 관련된 갈등이 기저에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령¹¹⁾은 한국의 恨에 대해 “자기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회구하고 성취하려는 욕망이 없이는 절대로 이뤄질 수 없는 정감이다”고 말한다. 즉 한국의 恨이란 마음속에 맺혀 있는 하고 싶은 일을 말한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恨의 이야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한국 사람들은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망, 즉 ‘신분’을 상승시켜 지배적 위치(입신양명)에 서려는 욕망일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신분상승과, 입신양명이란 어떻게 가능하고 정당한 방법일까? 그것은 학문을 통한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었다. 강창동(2008)은 유교의 효에 대하여 언급하며, 과거급제를 통해 입신(立身)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효의 끝이라 지적하였고, 과거급제를 위해 조선사회에서는 문중에서 재능이 있는 자가 있으면 가문 중심의 집단적인 교육투자를 서슴치 않았음은 물론, 미약한 가문출신이라도 과거에 합격하면 가문전체가 일시에 사회적 명예와 보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과거 시험에 전 인생을 투자할 수 있었다고 그 시대상을 폭로하였다. 그는 당시 교육열의 배후에 사회적 신분상승과 유지를 열망하는 조선인들의 욕망이 숨어 있음을 4가지의 교육열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조선시대의 교육열은 첫째 지위 지향적인 교육열이었고, 둘째 가족주의적 교육열, 셋째 상징 주의적 교육열, 넷째 결과 주의적 교육열이었다며 조선시대의 교육열을 현대의 시각으로 재조명하였다. 즉 조선시대의 유교교육은 사회적으로 인(仁)을 실현하여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인격도야(人格陶冶)에 있었으나, 유교와 과거제가 연계되면서, 유교교육은 신분상승과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그 본질적 의미가 변질되었다. 특히 유교의 대표적 사상 중 하나인 입신양명(立身揚名)은 수신(修身)을 통해 仁의 도를 깨달아 사람들에게 사심 없는 자애로 사랑을 베풀어, 자연스럽게 널리 사회에 이름이 알려지게 하는 것이었으나, 입신양명이라는 자녀의 도리가 과거제와 결부되면서 출세를 위한 가장 공정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변질되었다. 과거제는 불행하게도 관료사회의 정치사회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세속적인 도구로 변질되었고, 유교학문만이 관료로 출세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은 신분상승과 효를 실천하는 지름길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11) 이어령 “푸는 文化, 신바람의 文化”, 중앙일보, 1982.9.23.

(국사편찬위원회, 1994: 8). 그리고 한국사회의 체면은 신분상승과 지위를 위장하려는 ‘겉치레’에 가깝다며 최상진 외(1992: 139)는 다음과 같이 체면을 정리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체면은 1)지위가 높음을 나타내려는 심리 및 사회문화구조와 관련되며, 2) 이러한 지위를 외적인 지위상징물이나 지위상징행동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 보이게 되며, 3)따라서 체면에서는 체면 상징을 외부사람이 지각하는 것에 의해 체면현시 효과성 여부가 결정되며, 4)체면이 지나치게 강조될 때 형식주의가 나타나며, 또한 자기과시로 상대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홍균(2006: 215-217)은 한국사회에 대해 “한국사회는 비교 우위를 증명하고자 하는 사회적 힘과 비교 열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회적 힘의 작용은 다른 사회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하며 ...중략...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그것은 한국 사회의 사회 병리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평균적인 생활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은 인격적 위신 투쟁의 패자가 된 것을 의미한다”며 체면을 지키기 위해 한국인들은 인격적 위신투쟁을 목적으로 한 물신적 위신투쟁을 수단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말한다. 즉 한국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것을 최고의 모욕(김용운, 1986)으로 간주하여 체면을 지키기 위해 ‘겉치레, 위장, 과시’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역사를 통틀어 ‘신분상승’, ‘입신양명’이라는 과제는 한국인 모두의 공통적 목표이자 삶의 숙원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지배적인 위치에 서지 못 한 욕망’이 결국은 ‘내 자손에게 만큼은 좋은 세상을 보게 하리라’라는 의식이 구조화 되어 신분상승과 관련된 정보를 얻게 되면 비이성적, 비합리적, 비논리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버리는 ‘사고정지’ 상태가 초래된다. 그 예를 다음 장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제2장 한국사회의 사고정지 실태

본 연구자들은 ‘신분상승, 입신양명’이라는 키워드가 ‘한(恨), 체면’이라는 한국인의 독특한 감성과 결부될 때 아무리 비이성적, 비합리적, 비논리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겨 버리는 상황을 주목하였다. 본 장에서는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이성적, 비합리적, 비논리적인 사례들을 사고정지라는

키워드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한국사회의 사교육비 과잉지출 현상

김신일(1985: 117)에 의하면 한국사회에서 학력(學歷: 학교에 다닌 이력)이 갖는 사회적 가치는 수입, 직업, 지위 등을 가져다주는 원천이 되므로 실력보다 學歷이 좋은 사람이 보다 좋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가치로 여기고 추종한다고 말했다.

2014년 8월 현재 한국에는 340개의 대학이 있지만, 모든 대학이 똑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대학교는 서열이 존재한다. 소위 SKY라고 불리는 일류대학을 비롯해, IN 서울대학, 그 외 대학은 지잡대(지방의 잡다한 대학)라 하여 서열지우고 있고, 특히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이 서열에 따라 평가한다는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는다.

박거용(2004: 25)은 “대학 서열화에 따른 결과는 졸업 후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하는 졸업생들의 진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고, 이와 궤를 같이하는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의 장차관급 학벌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이 가니 고서영(고시·서울대·영남)이 왔다¹²⁾’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벌 및 지역인사의 편중현상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틀어 변하지 않는 사실이 되고 있다.

조선시대의 한 개인의 과거급제가 가문 전체의 일상을 책임 질 수 있는 보상을 제공했듯, 학력(지식)을 통해 합법적으로 신분상승을 하려는 문화적 전통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더욱 두드러졌고¹³⁾ 해방이후도 신분상승과 계층이동을 가능케 하는 가장 확실하고 주요한 기제로 학력이 크게 작용함으로써 한국의 교육열은 계속해서 높아져 왔다.

정원식(1984: 89)은 “한국의 교육열은 교육을 받을 사람의 열의라기보다는 교육을 기대하는 사람의 열의, 즉 부모의 교육열이지 학생의 교육열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김용숙(1985: 12-17)은 ‘입신출세에 필요한 최고의 학력이 일류의 학벌을 자녀들에게 갖게 하려는 사적인 욕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영화(1992: 195)는 ‘교육기대 수준’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행위를 중심으로 교육수요의 집단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2) <http://www.sisapress.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61573> 「시사저널」 ‘박근혜정부 장차관급 전수조사’, (2015.7.20.검색)

13) 이충우(1980),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266-297쪽, ‘경성제국 출신자들은 교육 위계구조의 최고 상층부에 있는 것과 같이 직업의 위계적 위치에 있어서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교육구조와 직업적 위계구조와 서로 대응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전통적 교육적 믿음을 자극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다. 김영국(1998: 42)은 “한국사회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교육열은 순수한 교육열이라고 보기보다는 상급학교,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열...중략...단지 대학진학을 위한 경쟁과정이 학교교육이라는 사회적 장치를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마치 경쟁이 교육인 것처럼 잘못 인식...중략...한국에서의 교육열의 증착은 대학입시에서의 성공이며...중략...한국인의 교육열은 사유성은 높지만 공공성은 낮다”고 지적하며 한국교육을 결국 사적재화이지 공적재화로 간주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열은 신분상승의 기능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 교육을 통해 제공되는 신분상승의 확실한 보상 때문에 우리나라 학부모들을 비롯한 학생들까지 사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며, 더구나 고등교육이 계급 상승의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학력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대학은 명문대와 비명문대로 구분이 된 것이다.

한국의 교육이 사적재화로 이용되면서 교육은 ‘경쟁’이라는 속성을 갖게 되었고, 이 경쟁을 이긴 자만이 ‘일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일류 인생을 자녀에게 안겨줄 생각에 한국의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요즘은 소득의 양극화로 잘 사는 사람일수록 더 좋은 사교육을 받고, 못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수준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사교육의 형태는 매우 기형적으로 3살도 안된 갓난아이들이 영어수업을 듣고, 유치원생들은 초등학교 공부를, 초등학생들은 중학교 수학공부를, 중학생은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 선행학습의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으며¹⁴⁾, 단시간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 방학기간 동안 서울 강남지역의 고액 족집게 학원으로의 학원유학¹⁵⁾을 한다(다른 나라 학생들도 찾아오고 있

14) 통계청(2014), “2014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2015.2.26. 배포.

15)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984560 “‘그 강사 만나면 성적 올라’ 유학 갔던 중·고생들 방학 땐 SAT학원 다니러 귀국”. 「동아일보」 2010.1.26. (2015.7.15.검색).

“수험생 2만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Real SAT’의 게시판에는...중략...“부모 잘못 만나서 잠 못 자고 공부한다”는 글까지 올라와 있다. 강남역 부근 어학원에서 만난 10대 후반의 학생들은 “정직하게 경쟁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분노했다. 사건이 발생한 와중에도 인터넷 카페에는 ‘SAT 기출문제를 전송하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고...중략...이를 비판하는 내용은 단 한 개였다.”, “S씨의 아들이 6, 7, 8월 석 달 동안 SAT 관련 수업에 수강료는 2000만원이었다. 그는 “학원 등록을 함께 한 엄마들이 카드 한도가 또 구멍 났다는 푸념을 늘어놓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부모가 자녀 학원비를 위해 빚을 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중략...“내신이 별로이던 학생들이 김 강사를 만나면 갑자기 성적이 오른다는 말에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중략...S씨의 아들은 이번 겨울에도 국내에 들어왔다. 강남의 R학원을 찾아가니 열흘에 700만원을 달라고 했다....중략...방학 때만 되면 SAT 전문학원에는 외국 유학생들이 넘쳐난다. 해외에서 실력을 닦아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족집게 강의의 천국’인 한국에 와서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다.

음). 그리고 어린학생들의 조기유학 등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기형적인 가족의 예 또한 마스크를 통해 접한 지 오래다. 이러한 사교육의 폐해는 학교수업 소홀, 학생들 간의 지나친 경쟁심 유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적 사고력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김순남 외, 2010: 142), 소득과 소비양극화의 심화는 교육비가 가계지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사교육비 양극화로 이어져(유한구, 2006; 남인숙, 2011) 계급의식을 갖게 만들고 있다.

손승영(2006: 263-264)은 한국사회에서 급속히 진행된 상업화 현상이 가족주의와 결합하여 사회적 과시를 증폭시켜왔고, 가족중심적인 사고와 가족주의에 기초한 과시의 사회압력은 개인들이 일정 수준의 소비를 향유하고 타인의 기대치(체면)에 어긋나지 않게 특정 행동들을 하게끔 기대치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지위의 재생산이나, 신분상승에 집착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과도한 기대를 수반하는 가족주의, 과시문화, 가부장적 가치관은 개인들로 하여금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걸림돌로도 작용하게 만든다. 즉, 변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다양한 가치관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경직된 구조를 양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저항에 직면하는 부분 또한 커지고 있다. 높은 기대치 충족의 부담 및 변화와 저항 속에서의 갈등 증가로 가족중심적 과시문화를 강화해온 현대 사회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모순적 현상들로서 ‘한국가족의 패러독스’를 양산해 내고 있다고 말한다. 이홍균(2006: 238)은 한국인의 내면에 ‘한’으로 남아 있는 ‘신분상승’과 ‘체면’을 지키려는 한국문화가 타자와의 비교와 결합되어 사회압력, 과시의 사회적 형식으로 내재화 되었다 보고 있다. 그는 한국사회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사회압력이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켰고, 사회압력이 투입된 개인은 이것에 자동적으로 복종하며, 개인은 부조리한 사회에 길들여져 대안적이고 초월적인 시도는 비현실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한다.

사교육비 과잉지출은 교육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익힐 공교육의 교과과정을 미리 배워둠으로써, 타인보다 우월한 위치, 지배적인 지위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다. 지배적인 지위를 쟁취하기 위해 “~학원이 좋다더라”는 소문이 돌면 부모들은 가계경제에 부담이 되는 비합리·비논리·비이성적인 가격¹⁶⁾이라 할지라도 학원에 보내는 사고정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학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학 때면...중략...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칠레·뉴질랜드에서 유학생이 몰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16) 2014년 통계청(2015)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 46만4천원, 중학교 39만1천원, 초등학교 28만6천원 순으로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2.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

201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서울과 경기, 인천)의 주민등록 인구는 2,503만 명으로 수도권 인구 비중은 한국인구의 49.6%로 거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생활하고 있다.

조흥구(1987), 유경문(1991), 임연기 외(1993), 신현곤(1998), 고승미(2003), 오성배(2004)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학령인구의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교육환경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결과는 한국인이 거주지를 선정함에 있어 ‘자녀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질 높은 교육환경이 갖추어진 지역’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대부분의 한국인이 어려서부터 들으며 세뇌된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의 교훈이 우리의 일상에 적용된 실제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이 ‘신분상승과 입신양명’의 한을 풀 수 있는 수단이 되면서 교육시장은 교육의 차별화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이것은 우수한 공·사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경쟁, 그리고 그 공간을 선점하고, 이를 따르려는 사람들을 양산했다. 즉 차별화된 교육공간에서 교육받음으로써 치열한 입시경쟁을 남보다 쉽게 성취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열망과 교육업자들의 무한경쟁으로 고품격 프리미엄 공·사교육환경이 구축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 곳으로 몰리게 된 것이다.

197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강남개발 결과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각 분야에서 현격하게 드러났다. 특히 명문고였던 경기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옮기면서 서울휘문고등학교와 경기, 정신, 숙명여고 등이 강남신개발지역으로 옮기자 강남 8학군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다. 강남은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지만, 학교교육과 관련하여서는 매우 폐쇄적인 교육공간의 성격을 갖고(손준중, 2004)있다. 이 지역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강남구 혹은 서초구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 지역의 주택을 구입(혹은 전세)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목돈이 필요함으로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유할 수 없는 공간인 것이다.

박남기(1994: 187)은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가 자녀교육’이라 지적하고, 교통대란, 거주 난, 대기오염 등의 부정적인 단어들로 서술되는 서울에서 사람들이 끈질기게 눌러 사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환경 때문이라 지적하고 있다. 손준중(2004: 122)은 “아직도 강북에 사십니까?”라는 칼럼을 인용하여 강남의 사회적 의미를 소개하고 있다.

서울에서 밥술꺼나 먹고 조그마하나마 제집에 문패라도 달게 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그때부터 또 다른 꿈을 가꾸며 살아간다. ‘우리는 언제쯤이나 강남에서 살아보게 되나’하는

꿈이다. 더군다나 중·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아이를 둔 학부모들에겐 강남진출이야말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인 경우가 많다. 오늘날의 중산층 명모들은 자나 깨나 8학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8학군 안에 들어가야 자식에게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다(이광훈, 1991).

강남의 대치역을 중심으로 들어선 대치동 학원가는 ‘사교육 1번지’로 불린다. 이곳에서는 서울대 수학과 출신 수학강사가 굴러다니는 동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스타강사’, ‘족집게 강사’로 불리는 사람들이 대거 포진해 있고, 이들을 통해 수능능력시험에 꼭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강북지역이나 지방에서도 강남의 학원으로 유학을 오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상헌: 2004). 즉 강남 8학군은 교육소비와 관련하여 ‘좋은 곳’으로 인식되었고, 결과 강남의 학원가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몰리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를 연장하여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좋은 학원에 보내고 열심히 과외를 받아도 SKY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강남 대치역의 스타강사인 심정섭(2014: 29-30)은 다음과 같이 경험담을 말한다.

자신의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아이 앞에 좋은 학원과 선생님을 대령한 엄마들의 성공 사례는 10% 미만일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과 에너지를 쏟아 붓는 엄마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서울대 또는 못 해도 연대나 고대인데, 대치동에서 재수생활 없이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SKY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10%도 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중략...어찌 보면 대치동이 명문대생을 배출한 것이 아니라, 명문대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대치동에 와서 수업을 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신기루 같은 환상을 갖고 대치동에 들어와 수많은 학원에 보내고 수준별로 과외 선생님도 많이 붙였는데, SKY는커녕 인서울권 대학에도 진학하지 못한 대부분의 학생들과 부모들은 ‘침묵’ 모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스스로 알고 있다. 그러나 소위 ‘스타강사’, ‘족집게 강사’가 있는 ‘좋은 곳’에 가면, 없던 실력도 만들어져 ‘체면’을 살릴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향상된 실력을 통해 지금보다 나은 수입과 명성을 얻어 ‘신분 상승’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이러한 비논리적인 막연한 기대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사회는 사고가 정지된 상태로 좋은 곳 ‘서울’을 향해 가고 있다.

3. 청년층의 공무원시험 집중현상

부모들이 짜 놓은 계획에 의해 학원을 다니고, 부모의 의도에 의해 좋은 교

육환경으로 이사를 다니며 살아온 우리 청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목표로 설정해 놓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재수, 삼수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렵게 들어간 대학교였지만 이제는 졸업을 해도 취업이 되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1997년 말, IMF사태가 발발한 이후 우리사회는 모든 세대가 실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취업과 재취업을 늘 고민해야 하는 불안한 사회로 변화였다. 대다수의 직업이 임시직화¹⁷⁾ 되었고, 최저 임금생활자가 양산 되었으며, 자영업자들의 몰락 등 전 국민이 고용불안을 느끼게 된 것이다¹⁸⁾. 이에 청년층의 일자리에 중·장년층이 가세하면서 일자리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특히 사기업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업의 상황에 따라 무방비 상태로 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한 한국사회는 사기업의 장래성에 의심을 품게 되었고,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직업’ 즉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공무원의 인기를 반영하듯 2012년 중앙일보¹⁹⁾는 ‘이상적인 배우자 부동의 1위…男-공무원·공사, 女-교사’라는 조사내용을 발표하였다. 한국사회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직업으로 ‘공무원’이고 이들이 바로 제일의 배우자로서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2009년 공무원시험부터 응시 연령제한(9급-32세, 7급-35세)이 폐지되면서 공무원시험 낭인들이 누적되기 시작하여, 2014년 현재 취업 준비생의 3명 중 1명(31.9%)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법률저널, 2014,2,19) 나타났다. 특히 국가직 9급 공무원의 경우 3천명 모집에 193,840명이 응시하여 64.6대 1 이라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세 자릿수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배경에는 ‘안정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치열한 경쟁에 뛰어드는 이유가 안정성만의 문제일까? 정근하(2014a)는 한국의 공무원에 대한 전망의식에는 전통적인 사회문화 인식 즉 문(文)을 통한 입신양명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과거와 공무원시험은 합격만하면 신분이 보장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중략...2013년 KBS에서 방영하고 있는 ‘한국의 유산’에서는 ‘조선후기 시인 백곡 김득신’을

17) 김유선(2013: 4)에 의하면 외환위기를 거친 1999년 3월 이후 비정규직이 50%를 넘어섰고, 2002년 56.6%의 정점에 이른 후 점점 감소추세에 있지만, 2013년 3월 현재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46.1%(818만명)가 비정규직이었고, 정규직은 53.9%(956만명)로 10년 전과 큰 변화가 없어 한국의 노동시장은 절반은 비정규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071913485&code=990000&s_code=ao078, 「경향신문」, ‘올해 당신은 행복했나요’, 2010.11.7.(2014.5.31.검색)

19)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158784&ctg=1200, 「중앙일보」 ‘이상적인 배우자 부동의 1위…男-공무원·공사, 女-교사’, 2012.12.13.(2014.5.31.검색)

소개했다. 그는 59세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다. KBS는 그를 평생을 걸쳐 다독(多讀)한 진정한 학자라 소개한다. 특히 김득신의 묘비문을 소개하며, 실패를 거듭해도 끊임없이 공부하면 ‘이름을 얻을 수 있다’고 국민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그가 그 나이까지 공부만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합격만 하면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과거에 대한 믿음이 배면에 있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p.372)

수세기 전부터 우리의 선조들이 과거시험에 전 인생을 바친 것처럼 그 현상이 지금도 재연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무(武)보다는 문(文)을 중시하던 우리 선조들의 숭문적 태도와 부모를 하늘처럼 섬기는 효 사상이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우리의 교육과 도덕의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듯이, 과거(공부)를 통해 입신양명과 효를 이루려는 인식도 없어지지 않고 한국인의 의식 속에 그대로 침전되어 있어, 조금의 충격에도 다시 부유하여 우리사회의 행동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며 무이력 기간(공무원시험 준비기간)을 연장해도 이들을 관대하게 봐주는 이유는 이러한 인식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p.382)

고길곤 외(2010: 361)과 허희영(2011: 88), 오진(2012: 75)의 연구에서 확인되듯이 대학생들이 일반 기업에 비해 급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는 ‘안정성’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현재의 청년층 실업난, 민간 노동시장의 고용형태의 변화가 공무원 노동시장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 현상이라 보고 있다.

부모들이 짜 놓은 계획에 의해 좋은 학원과 좋은 학군으로 이동하여 살아온 한국청년들 중 소수만이 일류 대학, 일류 대기업 취업에 성공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2~3류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하다가 취업에 실패하자, 부모들과 학생들은 결국 안정적이면서 노동 강도가 낮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일 즉 ‘공무원’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취업준비생의 31.9%가 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기든스(2012: 192)는 영국의 런던에만 무려 340만개의 일자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사회에도 수많은 일자리가 있다. 그러나 수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자기 학력에 걸맞지 않는 소위 ‘힘 쓰고, 땀을 흘리며, 기름이 묻는 일’은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고 거기서 성공한들 신분이 상승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세 자릿수 경쟁을 즐기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하지만 한국의 취업준비생 중 31.9%가 ‘몇 년 만 고생하면’ 공무원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세 자릿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결코 그들의 도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수많은 직업들 중 오직 공무원만을 생각하는 한국 청년층의 비이성적, 비합리적, 비논리적인 도전이 ‘사고정지’ 상황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4. 한국사회의 명품소비 현상

사람들이 명품(의제차, 의제 화장품, 의제 핸드백 등)을 찾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특히 명품을 찾는 이유는 일반제품과 비교해 기능성, 희소성, 품질의 우수성을 약속하기 때문일 것이다. 명품 사교육 또한 일반 공교육에 비해 차별화되고 특성화 되어 있어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명문대 졸업장을 취득하고 명문기업에 취업하는 사례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교육을 공교육과 달리 생각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명품의 소유가 신분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품을 소유함으로써 신분이 상승한 듯한 만족감을 제공해 주는 즉각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²⁰. 명품을 소지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쉽게 위장하여 남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한국인의 욕구는 비합리적인 소비, 즉 명품소비 급증 현상²¹)으로 이어졌다(한국에서는 인당 평균 9개의 명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비합리적인 소비형태란 첫째, 부유층이 아닌 사람이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을 소비하여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과시소비’가 있고, 둘째,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는 ‘모방소비’의 비합리적인 소비 형태가 있다. 요즘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아 합리적인 생활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박미정(2001)은 과시소비의 주요원인이 제품의 지위 상징성과 과시욕구이며, 패션명품을 선호할수록 과시소비성향이 높다고 하였고, 황선영(2002)의 연구에서는 사회과시적 가치와 자기과시 혜택이 명품 구매시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의 ‘비합리적인 구매’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명품은 돈만 있다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물건이지만 불행하게도 돈이 없다면 누릴 수 없는 것이다. 명품소비는 본질적으로 기호의 소비이며 명품의 가치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데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데 초점을 둔 프리미엄 명품디자인은 베블런(Veblen: 1899)의 유한계급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중을 배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즉 ‘명품구매는 그 명품을 사용하는 기능적 가치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능력(부: Wealth)을 가지고 있음을 타인들에게 보임으로써 만족감을 얻는다’는 ‘현시적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가 한국의 소비형태가 되고 있다. 경제적 성공은 개인의 능력에 따른다는 자본주의 정신에

20) 최상진 외(2000)는 ‘한국인에게 체면이 발달되었다는 말은 체면의 기저욕구 면에서 자기완성적 욕구보다는 남으로부터의 승인과 인정의 사회적 성취욕구가 강한데서 체면의 식이 발달되었다 말한다’

21)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793392>, 「아시아투데이」, ‘명품 천국’ 한국...1인당 평균 9개 보유. 2013.4.10.(2015.7.30.검색)

의해 부가 미덕이 되어버린 오늘날, 자신의 부를 과시함으로써 타인에게 존경 받으려는 심리적 욕구는 경제적으로는 성공하였으나 사회적 지위나 자기 존중감(self-esteem)이 낮은 사람들이 물질소비를 통해 이를 충족하려는 보상행동(compensation)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명품소비가 사회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주위에서는 지금도 ‘집은 월세에 살더라도 자동차는 고급 대형 자동차를 타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며 대출을 받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남들 가지고 있는 명품 백 한 개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체면이 선다’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알바를 하는 대학생들과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으며, ‘남들 다 다니는 학원에 다니게 해야 자신의 체면, 아이들의 체면을 세울 수 있다’며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시적 지출, 명품 성향 소비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시당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국 외(2012: 63)의 글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과시적 소비가 만연하게 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적 압력에 못 이겨 결국 스스로가 외톨이를 자처하게 되고 사회 연결망이 끊기는 사태를 고발하고 있다.

학교 다니면서 알바는 계속했는데 한 달에 버는 20~30만원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친구하고도 멀어졌어요. 학교에서 애들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면 하루에 1~2만원이 금방 없어져요. 저한테는 피 같은 돈인데 말이죠. 결국 스스로 ‘왕따’를 자처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졌어요. 또래 여학생들의 명품 백 같은 게 부럽진 않았냐고요? 그런 질문 받는 게 너무 싫어요. 가방 같은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싫어서 친구들과하고 더 거리를 두었어요. 친구들이야 많이들 갖고 다니니.....(p.63)

명품소비는 한 개인의 기호, 취향, 욕구에 의한 소비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한국의 명품소비는 매우 비상식적, 비합리적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자신이 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품을 구매하고 소유함으로써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마음’, 명품을 가지고 있음으로 자신의 ‘체면이 유지’될 수 있으며, 명품을 가지고 있음으로 ‘남들이 자신을 부자(신분상승)처럼 봐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무리를 하는 것이다.

기성세대들의 ‘내 아이는 최고로’, ‘내 아이는 다르게’ 그러나 ‘남들이 하는 것은 똑같이 따라해야 한다’는 생각은 결국 주니어세대를 공생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경쟁을 잘하는 사람들로 만들었고, 경쟁에서 자기 혼자만 살아남으려는 경쟁구도는 결국 모두가 피해를 입는, 즉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하여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치열한 경쟁사회의 결과에 대해 강수돌(2013: 68)

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쟁시스템은 극소수의 존중 받을 사람과 대다수의 무시해도 좋은 사람으로 가른다. 극소수의 존중 받는 이들은 많은 경우 ‘우월감’에 젖어 산다. 이것이 지나치면 타자를 멸시하기 쉽다. 비인간화된다는 말이다. 반면 대부분의 존중 받지 못하는 이들은 ‘열등감’에 젖어 산다. 자기비하, 자신감 또는 자존감 결여, 소극성, 피동성, 나아가 우울증까지 동반할 수 있다. 행여 그 열등감을 남에게 들킬까봐 노심초사한다, 그러면서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자심의 탁월성을 증명하느라 별 의미도 없는 일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억압된 열등감은 가끔 주변 사람에게 갑작스런 공격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허다하다. 이런 식으로 사람 사이에 우열을 나누는 경쟁 시스템은 결국 우등생이나 열등생 모두를 비인간화한다. 갈수록 인간미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배경이다.

남과 비교하고 우열을 나누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어른 세대가 철학적·인문학적인 지향점 없이 오직 ‘다른 나라(사람)보다 잘 살아서 무시당하지 않고, 더 나아가 지배적인 위치’에 서겠다는 단순한 서열 쟁취의 취지 아래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앞만 보고 달려온 것처럼, 지금의 주니어세대 또한 누가 뭐가 ‘중더라’라고 하면 그것이 왜 좋고, 그것을 왜 좋아해야 하는지, 비판적인 사고 없이 어른들이 했던 것처럼 ‘사고정지’된 채 치열하게 경쟁하며, 어떻게든 많이 가져서 ‘신분상승, 체면 유지, 부모의 한’을 풀겠다는 일차원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사회의 사고정지의 실체인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일본사회에서 관찰되고 있는 ‘사고정지’ 현상을 한국사회에 적용하여 진단한 연구이다. 먼저 일본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고정지 현상은 일본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동질성과 획일성 유지가 무엇보다 강조되어 온 일본사회는 지금까지 해오던 관습(규범, 규정, 법령, 매뉴얼)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새롭게 바꾸려 하기보다(관습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죽음과도 같은 배척을 당하게 됨으로), 그것을 더욱 형식화, 구조화, 매뉴얼화 하여 그대로 따르려 한다. 그 결과 일본사회는 형식화, 구조화, 매뉴얼화 되어 누구누가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똑같은 실적을 올리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경제대국을 이루기도 하였다. 그러나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보급으로 세계는 시간을 다투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여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해야 하는 시대 즉, 적절히 임기응변을 할 수 있는 유연성과 다양성이 발휘 되어야하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습관적으로 지켜오던 ‘법령 준수’가 이제는 목적이 되어 스스로 판단하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이런 태도는 법령에도 없는 일을 굳이 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일본인들의 소극적인 책임 면피적 행동이 만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또한 한국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사고정지’ 현상에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유교에 바탕을 둔 한국사회는 숭문(崇文)주의적 가치와 ‘신분상승, 입신양명’이라는 입신(立身)의 가치가 결합하면서 치열한 경쟁구도가 만들어졌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그 무엇인가를 구해야 했다. 이 차별화된 삶을 소유하기 위해 한국사회는 아무리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사고정지 사회가 되었다.

조선시대 이전부터 일반인들의 신분상승을 위한 여러 제도들이 있었지만 한국 역사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입신방법은 학문을 통해서 출세(입신양명)하는 ‘과거급제’였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온 우리 선조들의 오랜 전통은 ‘서울대 입학’을 꿈꾸는 한국사회의 획일화된 꿈에서 확인된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차별화된 교육이 완비된 차별화된 공간으로 이동했다. 한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때문이며,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상식적, 비합리적, 비논리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의 청년들이 수 백 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준비생의 3명 중 1명이 안정성과 편안함만이 고려된, 즉 학문을 통해서만 입문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이들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명품을 소지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사고정지 현상’을 감지할 수 있다. 목적달성을 위해 아무리 비이성적, 비합리적, 비논리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무리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상황이 바로 ‘사고정지’의 본질인 것이다. 한일 양국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정지’라는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參考文獻】

- 강수돌(2013), 『팔꿈치 사회』, 갈라파고스.
- 강창동(2008), "한국의 편입증적 교육열과 신분욕망에 대한 사회적 고찰", 한국교육학연구 제14권 제2호.
- 고길곤 외(2010), "대학생의 직업선택 동기와 공직동기", 행정논총 제48집 2호.
- 고승미(2003), "주거지 환경선호에 대한 변화양상 고찰",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 국사편찬위원회(1994), 『한국사 23』, "조선초기의 정치구조", 탐구당문화사.
- 김상헌(2004), 『대한민국 강남특별시: 부와 교육 1번지 강남의 모든 것』, 위즈덤하우스.
- 김순남 외(2010), 사교육 진단 및 대책(1)-원인·문제 진단 및 종합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 김신일(1985),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 김영국(1998), "한국인의 교육열", 天蠶語文學 13호.
- 김영화(1992), "학부모의 교육열: 사회계층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0(4).
- 김용숙(1985), "학력, 학벌의식의 허상과 실상", 새교육, 12월호.
- 김용운(1986), 『일본인과 한국인의 의식구조』, 한길사.
- 김유선(201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3)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남인숙(2011), 한국의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교육 격차, 현상과 인식, 35(3).
- 루스 베네딕트/김윤식, 오인석 옮김(1996), 『국화와 칼』, 을유문화사.
- 박거용(2004), "[특집: 대학교육의 위기, 대안을 찾아서]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 역사비평 67호.
- 박남기(1994), "한국인의 교육열 이해를 위한 대안적 관점", 교육학연구, 32권 5호.
- 박미정(2001), "과시소비성향과 정장 수입브랜드 선호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서광선 엮음(1988), 『恨의 이야기』, 보리.
- 손승영(2006), "한국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과시: 지속과 변화", 담론201 9(2).
- 손준중(2004), "교육공간으로서 강남 읽기", 교육사회학연구 제14권 3호.
- 신현곤(1998), "지역간 인구이동 의사결정 요인에 대한 미시-행태적 접근", 연세대 박사논문.
- 심정섭(2014), 『강남에서 서울대 많이 보내는 진짜 이유』, 나무의 철학.
- 앤서니 기든스(2012),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 오성배(2004), "지역간 학업성취도 격차원인 분석: 지역효과와 학생이동의 영향 탐색", 한국교육 33(2).
- 오진(2012), "대학졸업자의 공무원 취업 결정요인분석", 한국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유경문(1991),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경제학연구 한국경제학회 39(1).
- 유한구(2006), 사회계층과 교육격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경숙 외(2001) 『한국 생명 사상의 뿌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사.
이어령 “푸는 文化, 신바람의 文化”, 중앙일보, 1982.9.23.
이정국 외(2012), 『왜 우리는 혼자가 되었나』, 레디셋고.
이충우(1980),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이흥균(2006), “한국인의 사회적 과시와 인정의 사회적 형식”, 담론 201, 9(2)
임연기 외(1993), 학생이동의 실상과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정근하(2014a), “청년층 무이력 기간 장기화 현상 연구(1) 한국편-한국의 사회문화적 인식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제60집.
_____ (2014b), “청년층 무이력 기간 장기화 현상 연구(2)일본편-일본의 사회문화적 인식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제63집.
정원식(1984), “교육열”,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6권 3호.
조흥구(1987), 교육인구의 도시집중현상과 그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행정논집 2.
최상진, 박정열 외(2000), “한국인의 우쭐심리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접근”, 인문학연구 29집.
최상진·유승엽(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 회지: 사회 제6집 2호.
통계청(2014), “2014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2015.2.26. 배포.
허희영(2011), “공무원 지원자들의 직업선택 동기에 관한 연구: 7, 9급 지원자들을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논문.
황선영(2002), “명품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외국자료

- 森有正(1971), “出發点日本人とその經驗(b)”, 思想568号.
濱口惠俊(1977), 『「日本らしさ」の再発見』, 日本經濟新聞社.
權谷浩(2011), “日本の危機”, 商學討究, 62(1).
郷原信郎(2007), 『「法令遵守」が日本を滅ぼす』, 新潮新書.
_____ (2009), 『思考停止社會: 「遵守」に蝕まれる日本』, 講談社.
Thorstein Veblen,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NY: Macmillan, 1899)

인터넷 자료

- <http://sankei.jp.msn.com/life/news/130825/edc13082511110000-n3.htm>, 「산케이뉴스」急増LINE仲間内でエスカレート自殺後も, 2013,8,25.(2014.7.25.검색)
<http://www.tbs.co.jp/mito/intro/> (2015.7.2. 검색)
<http://www.city.numata.gunma.jp/enterprise/keitai.pdf>, 沼田市 教育위원회
<http://www.sisapress.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61573> 「시사저널」 ‘박근혜정부 장차관급 전수조사’, (2015.7.20. 검색)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984560 「동아일보」 “그

강사 만나면 성적 올라' 유학갔던 중·고생들 방학땀 SAT학원 다니러 귀국". 2010.1.26.(2015.7.15.검색).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07 「e-나라지표」,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2015.7.25.검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071913485&code=99000_0_&s_code=ao078, 「경향신문」. ‘올해 당신은 행복했나요’, 2010.11.7. (2014.5.31.검색)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158784&ctg=1200, 「중앙일보」 ‘이상적인 배우자 부동의 1위…男-공무원·공사, 女-교사’, 2012.12.13. (2014.5.31.검색)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01>, 「법률저널」, ‘국가직 9급, 경쟁률 64.4대 1...3,000명 모집에 193,840명’, 2014.2.19. (2015.2.23.검색)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793392>, 「아시아투데이」, ‘명품 천국’ 한국...1인당 평균 9개 보유. 2013.4.10.(2015.7.30.검색)

투 고 일 : 2015. 8. 31
심 사 일 : 2015. 9. 12
게재확정일 : 2015.10. 3